

선어록 해제 39 한국선과 선어록 10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9>

평범한 사람되려 수행하는 것

학인이 물었다.
“백가지 빠가 다 무너져 흩어져도 한 물건만 오랫동안 영묘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또 바람이 일어났다.”

問 百物俱潰散 一物鎮長靈時如何
師云 今朝又風起

백가지 빠가 다 닳아 흩어져도 정신 하나만은 영묘(靈妙)하여 분명할 때는 대단한 경지이다. 대개 몸이 아프면 마음도 바로 흐트러지고 만다. 아파서 드러 누워있어 보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정신이 산란해서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이것을 혼침산란(昏沈散亂)이라고 말한다.

참선이나 염불 삼매를 익혀 경계가 깊어져 한번 삼매에 빠지면 몸도 있고 주변도 있는 경계가 오는 수가 있다. 수 시간이 지나도 화두나 불명호(佛名號) 하나에 몰두했으므로 모든 것을 잊는다. 몸도 마음도 있는 몰아의 경지다. 이러한 때의 경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 조주 선사는 “오늘 아침에 또 바람이 일어났다”고 대답했다. 설사 그런 경지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은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고요한 아침에 한낱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기특한 경지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마음을 내면 벌써 멀어지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3승 12분교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달마 조사가 인도에서 온 정신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수고우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잘 돌봐주어라.”
학승이 말했다.
“그 뜻이 어떤 것이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도 몰라.”

問 三乘十二分教即不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水牯牛生兒也好看取

아상(我相)이 떨어진 곳에 도가 있다 평범한 사람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

달마 스님이 불법의 대의를 깨닫자 중국으로 건너와 부처님의 선법을 전파했다.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불교가 일어났는데 바로 선불교(禪佛敎)이다. 선불교는 부처님의 정신을 높이 신앙한 불교이다.

따라서 가지를 치고 잎 따는 식의 지엽적인 것은 다 버리고 오직 본질을 가리키면서 사람을 깨

달마 스님이 불법의 대의를 깨닫자 중국으로 건너와 부처님의 선법을 전파했다.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불교가 일어났는데 바로 선불교(禪佛敎)이다. 선불교는 부처님의 정신을 높이 신앙한 불교이다.

따라서 가지를 치고 잎 따는 식의 지엽적인 것은 다 버리고 오직 본질을 가리키면서 사람을 깨

닫게 한다.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정신이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 많고 설명이 많으면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리킴의 목적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있어야지 설명까지 해주면 더더욱 깨달을 기회를 놓치고 만다.

선사들은 짧은 말, 무언의 행동, 중간 설명을 잘 라먹은 언어로써 가르친다. 달마가 동쪽에서 온 뜻 역시 짧은 언어이고 화두이다. 화두는 비밀인 어이고 질문을 품고 있는 명제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날 불법의 대의와 우주와 인생에 대하여도 통달하게 된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것은 중국에 부처님의 선 사상을 전파하려고 왔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 정신을 그대로 보인다면 어떤 것이 되겠는가? 조주 스님은 “수고우[牛]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잘 돌봐주어라”고 말했다. 엉뚱한 말같이 들리지만 두고두고 이 화두를 들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을 것이다.

도는 평범한데 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선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만일 수행자가 자기라는 상(我相)이 다 떨어져 나갔다면 그 자체가 진귀한 보물이고 평범함으로 돌아간 것이고 도에 들어간 것이다.

만일 본 남자에게 수고우가 새끼를 낳았을 때 잘 돌봐 주는 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난 바쁘니까 큰 스님께 가보게.”

무불선원 선원장

정법안장 요체와 수선법 등 담아

백운경한(白雲景閑: 1298~1374)은 전북 고부에서 출생했다. 그 어록에다 이색(李穡)이 붙인 서문에 의하면 고려 조계종 대선사 경한은 호가 백운이다. 백운 자신의 말에 의하면 중국의 하무산 석옥청공(石屋淸珙)의 법을 이었다. 나이 77세에 취암사(鷲岳寺)에서 입적했다.

백운경한은 10여 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많은 선지식을 참문했다. 특히 중국 임제종의 석옥청공으로부터 법을 이은 후에 서천(西天)에서 온 지공(指空)에게서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를 해결했다. 석옥은 임종하면서 그 전법계(傳法偈)를 제자 법안(法眼)을 통해 고려의 백운에게 전해줄 만큼 백운을 신임했다.

백운경한의 선풍은 이름 그대로 성품이 천진스럽고 전혀 거짓이나 조작이 없고, 형상을 빌어서 이름을 팔지 않았으며, 참으로 속세를 여원 진경(眞境)에서 노니는 사람이었다. 백운의 법어는 마치 어둠을 부수는 밝은 등불과 같고, 더위를 씻어주는 청량한 바람과 같았다. 백운의 특징은 임제선을 수용하면서도 무심(無心)과 무념(無念)을 강조해 백운의 선은 무심선(無心禪)이라 불렀다. 백운은 조주의 무자(無字)와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과 만법귀일(萬法歸一)을 강조하면서 화두를 무심(無心)으로 들도록 했다.

백운경한은 태고보우의 추천으로 공민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했다. 다시 나옹해근의 천거로 공민왕의 부름에 응해 신광사(神光寺)에 주석했다. 그 당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터에 불교종단 내부에서도 공부선(工夫選)의 제도처럼 신돈을 중심으로 한 화엄종과 태고를 중심으로 한 선종의 합거루기에서 나옹과 백운의 등장으로 선종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다. (백운어록) 이외에 저서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명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2권이 있다.

백운의 무심선풍은 자연과 인생에 대한 달관의 경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선의 본래성으로 돌아가 당시 조사선의 가풍을 이어온 간화선의 진작에 더욱 큰 의미를 부각했다. 백운경한은 중국의 임제계통인 석옥청공(石屋淸珙)과 평산처립(平山處林)의 법을 이었다. 백운은 중국 임제계통의 양기파의 정통을 잇고서 고려에 이전의 구산가풍을 임제종풍으로 통합하려는 점에서 그 사상적인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한편 간화선을 수행의 정통으로 수입해 임제종풍을 중심으로 한 제 종파의 섭수를 꿈꾸어 그것이 마침내는 조계종풍으로 표명했다. 그 노력은 이후 <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는 전등사서의 편찬으로 회향했다.

백운경한은 54세 때 석옥청공으로부터 사법과 더

불어 <불조직지심체요절> 1권을 받았다. 고려에 돌아온 이후에 백운은 75세 때 그것을 다시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증보하고 2권으로 나누어 나름대로 초록해 전승한 것이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2권이다. 판본으로는 선광 8년 취암산유판본(국립도서관본)과 선광 7년 청주목의흥덕주자본(파리도서관 소장 영인본) 등이 전한다.

그 내용은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역대 부처와 조사들이 이심전심의 방식으로 대대 상전한 정법안장(正法眼藏)의 계보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곧 과거칠불로부터 인도의 28대 조사와 동토의 6대 조사를 비롯해 무려 145명의 법어를 기록하고, 기타 몇 가지 경론에서 발췌한 내용과 선사들의 잡곡이 수록돼 있다.

그 구성은 국립도서관본의 경우 서문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시작돼 불조직지심체요절 권상 및 권하, 백운경한 자신이 붙인 1372년의 발문으로 구성돼 있다. 장서각본에는 맨 앞에 국립도서관본에는 없는 목은 이색의 1378년의 서문과 성사달 검선의 1377년의 서문이 붙어 있다.

목은 이색의 서문에는 백운경한의 임적 이후에 그 문도였던 법린과 정해가 김계생의 시주를 받아서 목판으로 새겨서 간행하면서 목은 이색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으로 보아 목판본에 붙은 서문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또한 성사달 검선의 서문에는 석찬 선사가 1377년에 성사달 검선에게 부탁한 것으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하면서 붙인 서문으로 짐작된다.

권상에는 과거칠불의 전법계를 비롯해 서천 28대 조사의 기연어구와 전법계를 비롯해 동토 6대 조사 및 조계해능의 5대 조사와 기타 송산해안에 이르기까지 그 법어를 기록하고 있다. 권하에는 이호대의 의(좌선명(坐禪銘))으로부터 시작해 문상에 이르기까지 그 법어를 수록하고, 이어서 낙포원안의 <부구가(浮漚歌)> 등의 몇 가지 가송, 몇 가지 경과 료에서 발췌한 수선의 원리, 나아가서 동산양계 사친의 서(書)로부터 송대 천복승고의 법어에 이르기까지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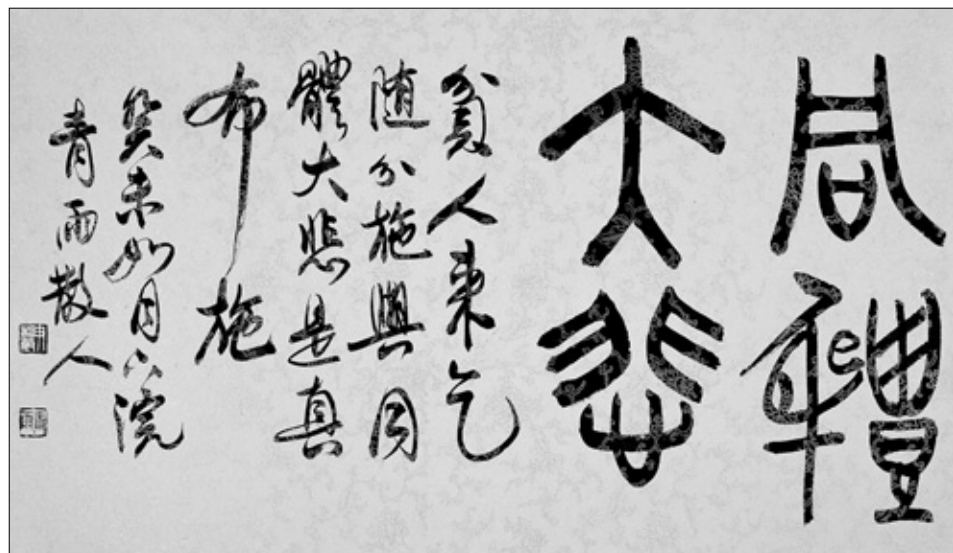
이처럼 <불조직지심체요절>에는 전등사서를 비롯한 경전과 논서 및 각종 어록을 통해 전승된 다양한 법어·가송·잡곡·찬(贊)과 명(銘) 등으로부터 정법안장의 요체를 보여준 법어와 수선의 방법과 그 마음가짐 등에 대해 수록한 선서(禪書)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몇 안되는 대표적인 전등사서이기도 하다.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백운선의 특징은 무심·무념한 무심선 정법안장 계보 정리와 선사어록 담겨

운상민의 서화산책 7 선가귀감

한 몸처럼 알고 베풀라



同體大悲 貧人來乞 隨分施與 同體大悲 是真布施 (동체대비 빈인래걸 수분시여 동체대비 시진보시)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에 따라 베풀어라. 그들을 한 몸처럼 알고 베푸는 마음이 부처님 자비이니 이것이 진실한 보시니라.

貧: 가난할 빈
乞: 빌걸
隨: 따를 수
施: 베풀 시
與: 줄여

정계보체수빈대동
우미시대분인비체
산여비시래
인월하진동
하안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참 나를 찾을 때 위기는 극복된다

제 5차 참선대중화 선회

근기를 없앤 활인참선 이 생애 깨달아 성불하는 참선

참 나를 찾으면 자신과 내가 일치합니다.
나와 내가 일치하면 대만족이요 행복입니다.
일치하면 계합이요 계합하면 깨달음에 이릅니다.
참선은 불교가운데 가장 뛰어난 최상의 지혜이기에 최상승입니다.
최상승의 참선은 극히 보편적이며 극히 일상적이기에,

참선의 깨달음은 다반사라 불리울 만큼 일상적인데서 극치라 일컬어지는 구경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말하고 가정의 위기는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위기의 극복은 참 나를 찾을 때 가정도 사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참선의 대중화는 자신을 찾을 때이며 참선의 대중화는 인류의 대전환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 4월 8일(금) ~ 10일(일)

삼매체험선 수련회·단기출가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3월 26일 ~ 3월 30일 (5일간)	6월 10일 ~ 6월 14일 (5일간)
~ 4월 23일(30일간)	~ 7월 9일(30일간)
4월 8일 ~ 4월 12일 (5일간)	7월 8일 ~ 7월 15일 (8일간)
~ 5월 7일(30일간)	7월 22일 ~ 7월 26일 (5일간)
5월 13일 ~ 5월 17일 (5일간)	7월 29일 ~ 8월 5일 (8일간)
~ 6월 11일(30일간)	8월 9일 ~ 8월 13일 (5일간)
	~ 9월 10일(30일간)

활인선원정진대중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하 안 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동 안 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봄 산 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공부 힘을 얻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물만 마시고 고향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예방가능
면역성 노화억제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금주 쾌차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다이어트 1일 최고 3kg
청소년 대학생 일반